

엔도 슈사쿠의 『사해의 주변』의 세계

— 예수像을 중심으로 —

임 종 석*

目 次

시작하는 말

I. 작품의 성립과 구성

II. 작자 엔도의 분신 「나」와 도타

III. 동반자 예수

IV. 약자의 복권

V. 엔도의 예수

맺는 말

시작하는 말

1923년 3월 27일, 도쿄 스가모(東京巢鴨)에서 태어난 엔도 슈사쿠(遠藤周作)는 가톨릭 작가로 기독교에 있어서의 동서양의 대립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여오다가 1996년 9월 29일,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에 의해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서양인들에 의해 자라온 신은 동양의 일본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은 신에 대해 작품을 통하여 끊임없이 탐구하다가 『침묵(沈黙)』에서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에게 후미에(踏繪)를 밟으라고 말하는 신을 형상화하는 데 성공한다. 엄격한 부성으로서의 신(父なる神)이 아닌 자애로운 모성으로서의 신(母なる神)을 彫塑해낸 것이다

그로부터 7년 뒤, 그는 다시 『예수의 생애(イエスの生涯)』를 통하여 자신만의 예수像을 빚어내는데, 『사해의 주변(死海のほとり)』은 이 『예수의 생애』와 표리를 이루는 소설이다.¹⁾ 『예수의 생애』와 『사해의 주변』의 예수像은 같은 꿀 내지 닦은 꿀이라는 말도 되는

* 충남대학교 교수 일본근대문학

1) 작자 엔도는 『사해의 주변』(新潮社, 1973·6, p.327)의 「후기를 대신하여(「あとがき」にかえて)」에서 「『예수의 생애』는 본 소설과 표리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데, 이 예수像은 무능하고 불품없는 인간으로서 사랑만으로 充溢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엔도가 빚어낸 신과 예수像은 성서의 그것과는 달라 기성 교회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견뎌야만 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작품세계를 전면적으로 고찰하는 가운데, 작품 속의 예수像을 규명하여 성서 속의 예수와의 차이를 찾아, 어느 쪽이 歷史 속의 예수, 즉 실제로 존재했던 事實의 예수인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I. 작품의 성립과 구성

『사해의 주변』의 주인공은 소설가로, 이름을 부여받지 않은 채 「나(私)」로서 등장한다. 『사해의 주변』은 이 「내(私)」가 대학 기숙사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 지금은 UN 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성서학자 도타(戶田)의 안내를 받아 한 여행의 기록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나」는 예수의 발자취를 더듬기 위해 이스라엘을 여행하게 되는데, 그 기록이 「순례(巡禮)」로, 그 사이사이에 예수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를 그린 「군상의 한사람」을 끼워 넣어 성립된 소설이 『사해의 주변』이다.

이에 대해 작자 엔도는 사토 야스마사(佐藤泰正)와의 대담²⁾에서 「『군상의 한사람』은 독립된 단편으로서 하나씩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해의 주변』의 main을 쓰는 중에, 그 지금대로 썼던 단편이 照應하기에 이것을 섞어 넣자고 하는 식으로 쓰는 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해의 주변』은 결국 「순례」와 「군상의 한사람」을 섞어 완성시킨 소설인데, 그 목차를 살펴보면 이렇하다.

I 예루살렘	<순	례 1>
II 기적을 기다리는 남자	<군상의 한사람	1>
III 유대인 학살기념관	<순	례 2>
IV 아르바요	<군상의 한사람	2>
V 사해의 주변	<순	례 3>
VI 대체시장 아나스	<군상의 한사람	3>
VII 가나의 거리에서	<순	례 4>
VIII 지 사	<군상의 한사람	4>
IX 갈릴리 호수	<순	례 5>
X 쭉 피는 남자	<군상의 한사람	5>
XI 테르 데뎃슈 키부츠	<순	례 6>

2) 遠藤周作・佐藤泰正 『人生の同伴者 遠藤周作』(春秋社、1991・11, p.173)

- XIII 백부장 <군상의 한사람 6>
 XIII 다시 예루살렘 <순 렘 7>

「순례」의 사이사이에 「군상의 한사람」이 끼어 있기는 하지만, 먼저 쓰인 것은 「군상의 한사람」이다. 이 「군상의 한사람」은 각각 독립된 단편으로 발표된 잡지도 서로 다른데, 발표된 순서 또한 『사해의 주변』 목차의 순서와 같지 않다. 그 발표순서와 잡지는 이렇다.

- ① VIII 지 사 <군상의 한사람 4> (『新潮』<1971·1>)
 ② X 썩 피는 남자 <군상의 한사람 5> (『季刊芸術』<1971·冬号>)
 ③ IV 아르바요 <군상의 한사람 2> (『新潮』<1971·7>)
 ④ VI 대체사장 아나스 <군상의 한사람 3> (『群像』<1971·10>)
 ⑤ XIII 백부장 <군상의 한사람 6> (『新潮』<1971·11, 『文芸』<1972·1>)
 ⑥ II 기적을 기다리는 남자 <군상의 한사람 1> (『群像』<1973·1>)

이와 같이 발표된 「군상의 한사람」은 신약성서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생애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인 것으로 일련의 短篇小説群을 이루고 있다.

『사해의 주변』이 『예수의 생애』와 표리를 이루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술한대로인데, 『예수의 생애』는 처음 『성서 이야기(聖書物語)』라는 이름으로 『나미(波)』에 1968년 5월호로부터 1973년 6월호까지에 발표된 것을 1973년 10월에 신초사(新潮社)로부터 간행될 때 현재의 題名으로 改題한 것이다. 그런데 두 작품의 표리의 관계는 『사해의 주변』의 두 부분 중 「군상의 한사람」이 『예수의 생애』와 더욱 깊다.

두 작품의 발표 기간을 보면 『예수의 생애』의 다른 이름인 『성서 이야기』가 1968년 5월~1973년 6월인데 비해 「군상의 한 사람」은 1971년 1월~1973년 1월이니까, 전자의 발표 중에 후자도 발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군상의 한사람」의 발표가 끝난 것이 1973년 1월인데, 『사해의 주변』이 간행된 것이 같은 해 10월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의 전자와 후자의 집필기간이 겹치거나 전자의 閣筆 직후 후자를 起筆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해의 주변』은 모두 1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주인공 「나」의 며칠간의 성지 예루살렘의 순례기에 해당하는 「순례」가 홀수의 장이며,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각계각층의 사람들, 유대인 대체사장이며 로마인 지사 백부장에 거지와 별로 다를 것 없는 썩 피는 사내에 이르기까지의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를 쓴 「군중의 한사람」이 짝수의 장이다. 즉 「순례」와 「군중의 한사람」이 교호해가며 작품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순례」의 무대가 된 것은 주로 현대의 예루살렘이고, 「군중의 한사람」의 무대가 된 것은 예수가 살았던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작품의 세계는 2000 년이라는 긴 세월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예수의 행적을 쫓기도 하고, tel³⁾ 속에 묻혀있는 예수의 얼굴의 편린들을 발굴하여 원상으로 복구하려 시도하기도 한다. 결국 작자 엔도는 『사해의 주변』을 통해서 예수像을 조형하고자 했던 것이다.

II. 작자 엔도의 분신 「나」와 도타

어느 소설이나 다 그러하지만, 특히 『사해의 주변』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에 대한 이해가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소설은 작자 엔도가 주인공 「나」를 통하여 예수像을 조형하려 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를 작자 엔도의 분신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사토 기요마시는 앞에서 언급한 엔도와의 대담에서 「엔도 씨의 분신인 작가 <나>」라 말하고 있고, 가사이 아키후(笠井秋生)는 자신의 저서 『엔도 슈사쿠론(遠藤周作論)⁴⁾』에 「작자의 분신이라고 해도 좋을 중년의 소설가 <나>」라고 적고 있다.

사실 「나」를 보고 있노라면 중년의 소설가라고 하는 사실 외에도 이 주인공이 작자 엔도와 오버랩 되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엔도는 3세 때 아버지의 전근으로 滿洲 大連에 가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부모의 이혼으로 10세 때 모친을 따라 귀국하여 고베(神戸)에서 살게 된다. 여기에서 어머니를 따라 나가게 된 성당(教會)에서 12살 때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어머니의 뜻에 따라 영세(洗礼)를 받게 된다. 결국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가 종교를 선택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자신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14)⁵⁾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순례 길에서 만난 성지 순례단의 구마모토(熊本) 목사를 향해 「서양인의 예수 같은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일본인인 내가 알 수 있는 예수 쪽이……」(217)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몸에 잘 맞지 않은 양복입니다. 「일본인인 나의 몸이 기독교라고 하는 양복을 입게 되었을 때의 어색함, 험령험령한 느낌, 이와 같은 데에 오래 괴로워해 왔」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3) 『사해의 주변』은 이에 대해, 「예루살렘은 예수가 죽은 뒤 몇 번이나 파괴되고 재건되었다. 로마군이 무너뜨리고, 십자군이거나 이슬람군이 깨뜨려 폐허가 된 거리 위에 새로운 거리를 만들었다. 차레차레로 무너진 거리 위에 거리를 만들면 언덕처럼 된다. 그것을 고고학에서는 tel이라고 하는 것이다.」(이 문장은 「V. 엔도의 예수」의 본문에서 다시 인용한다)라고 설명한다.

4) 笠井秋生 『遠藤周作論』(双文社出版, 1987·11, p.185)

5) () 안의 숫자는 이 논문의 텍스트인 엔도 슈사쿠 『사해의 주변』(新潮社, 1973·6)의 쪽수를 나타낸 것이다.

엔도의 옆모습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토 기요마사는 같은 좌담에서 도타(戸田)를 가리켜 작자 엔도의 「또 한사람의 분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엔도 자신은, 「나의 소설 속에는 모리타 미쓰(森田ミツ)라든가 도타(戸田)라든가 하는, 같은 이름의 인간이 등장합니다만 자기(역주: 엔도 자신) 속에서 위기(pinch)가 되는, 몰아넣어 가는 것 같은, 그것은 偽惡이라 해도 의심(疑い)이라 해도 마이너스(負)라 해도 좋습니다만 그와 같은 위험한 존재에게는 왜인지 도타라고 해버립니다.」라고 하는 정말이지 작가다운, 엔도다운 말을 한다.

도타를 엔도의 또 하나의 분신으로 봤을 때, 엔도를 이해하는 데, 그리고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그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엔도가, 자신 속의 무엇인가가 위기로 몰려갈 때, 자신의 위악·의심·마이너스와 같은 위험한 존재에게 도타라는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해의 주변』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이것은 사토 기요마사의 도타를 가리켜 「또 한사람의 분신」이라고 한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주기도 한다.

「나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가 종교를 선택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중년이 된 지금까지 자신을 억누르는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조금은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이 종교 기독교를 「몇 번이나 버리려고 했」으나 「버린 뒤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인지 자신이 없」(14) 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시합은 어느새 진행되어 내게 타자가 되는 순서가 돌아왔다. 힘껏 배트를 휘두르자 묵직한 느낌이 손에 느껴지더니 진흙으로 더러워진 회색 공이 멀리 날아갔다. 뛰라고 누군가가 소리쳤고, 일루를 정신없이 빠져나가 이루로 달리기 시작했을 때 삼루에서 공을 받은 환자가 쫓아왔다. 두 베이스 사이에 낀 나는 볼을 가진 나환자의 손이 몸에 닿을 것이라 생각하자 다리가 움츠러들었다. 이루수의 벗겨진 이마와 일그러진 두터운 입술을 가까이에서 봤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발을 멈추고 겁먹은 눈으로 그 환자를 올려다보았다.

「가세요…… 닿지 않을 테니까……」

그 환자는 작은 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가세요, 닿지 않을 테니까」

그 조용한 목소리는 이십 몇 년 만에 머리 속에서 들려온다.

대학에서 신자 학생들이 가톨릭 나병원에 위문을 갔을 때 학생들과 나환자들이 야구시합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의 장면이다. 여기에서의 「나」는 주인공 「나」인데, 의식 깊은 곳에는 이 장면이 앙금이 되어 있어 자기를 비하하는 데에 기여한다. 「나」는 대학시절에 스승 노사쿠 신부에 대해서 형사가 기대하는 대답을 한 것이라든가, 전쟁터에서 「같

6) 遠藤周作 『私にとって神とは』(光文社、1983・8, p.11)

은 종교를 믿는 적을 죽일 수 있나?」라는 형사의 질문에 도타가 아직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과는 달리 겁에 질려 「죽일 수 있습니다, 물론」이라고 대답했던 젊은 날의 지위버리고 싶은 추억을 기억 속에서 털어 내지 못한 채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씨앗으로 안고 살아 간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자신을 「방종한 성격(自墮落な性格)」의 주인공으로 규정하면서 「도타처럼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선택하는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어딘가에서 부러워한다」(22). 「나도 여자를 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안다」면서, 「그러나 교회의 설교대에서 신부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면 유리나 쇠붙이로 문지르는 것 같은 불쾌한 기분이 든다」고 말하는가 하면, 「사랑이라는 말을 가볍게 하는 수도녀를 만났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당신은 남자와 잔 적이 있느냐고 웃고 싶은 것을 억」(120)눌러야 만 하는, 어딘지 냉소적인 인간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타의에 의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신경 쓰이면서도 결단력이 부족한 소심한 성격으로 종교를 버리지 못하는 남자, 사물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냉소적인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에 대해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일에는 견디지 못한 성격, 이게 「나」이다.

이와 같은 「나」에게는 「열세 번째 제자(十三番目の弟子)」(48)라는 미완의 소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작품의 세계는, 「이 소설은 예수와 그 제자의 한사람인, 교활하고 거짓말쟁이인 투미한 사내에 대해 쓸 생각이었는데—그리고 그 사내는 나 자신의 투영이었다—그 것이 실패로 끝났을 때 나는 이미 예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만으로 본다면 「내」가 예수를 버린 것인지 아직 버리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나의 신앙은 빗물통처럼 긴 세월동안 부식되어있어 예수의 모습은 저 존 웨인의 간판화처럼 속악한 模寫에 지나지 않게 되어 있」(15)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가 유럽 여행 도중 계획에 없던 이스라엘을 찾게 되는데, 여행의 목적을 묻는 도타에게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나이도 먹었고, 게다가 인간은 많은 정열로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잃어버린 그 사내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마무리를 짓고 싶어」(30)라고 대답한다. 여기에서의 「그 사내」란 예수를 가리키는데, 중년이 되었다고 하는 자기인식과 인간의 능력의 유한성에 대한 깨달음 위에 한 말이다.

예루살렘에 온 「나」는 도타의 안내로 예수의 족적을 더듬는 여행을 시작한다.

도타는 「나」와 같이 작자 엔도의 분신이라고 하지만, 「나」와는 많이 다르다. 그는 엔도의 내면에 존재하는 위악·의심·마이너스와 같은 위험한 것으로서의 분신이기 때문에 「나」와의 相違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내」가 부모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데 대해 그는 대학시절에 「자진해서 세례를 받았」(12)고, 「겨울의 어둡고 추운 새벽, 미사에 나」(60)갈 정도로, 그리고 모두가 당국의 눈이 무섭고 사람들에게 백안시당하는 것을 꺼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려 했던 전시에든 혼자서 미사에 나갈 정도로 신심 깊은 사

람이었다(110).

그러나 도타는 성서학을 공부하면서 그 신앙을 많이 잃고 만다.

여기에 성서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 사내가 있는데 말야, 오랫동안 예수의 생애도 모습도 성서에 쓰인 그대로라고 믿어왔지. 그러나 공부가 진척됨에 따라 성서에 쓰여 있는 예수의 생애도 말도 사실이라기보다는 원시기독교단이 신격화하여 만든 것이라고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그는 후세의 신앙이 만들어낸 성서의 예수像을 공손하게 옆으로 제쳐두고 진짜 예수의 생애만을 발견하려고 이 나라에 왔다. (59)

왜 오랫동안 성서를 공부했느냐는 「나」의 질문에 대한 도타의 대답으로, 「한 사내」란 도타 자신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도타의 안내로 「나」는 예수의 흔적을 더듬는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작자 앤도의 예수像은 浮刻되고, 이를 돕는 역할을 「군상의 한사람」 시리즈가 해주는 것이다.

Ⅲ. 동반자 예수

『사해의 주변』의 세계에 예수가 시간상에 있어서 처음 등장한 것은 「군중의 한사람」에 서인데, 口傳을 통해서이다. 안드레아 집이 그랬던 것처럼 각 사람들 가정에서 자기에게는 어머니가,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아내가 말해줌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에 구전되었던 것이다. 그 구전에 의하면, 「그가 오면 절름발이가 걷고, 과부는 위로를 받고, 그리고 혈루병을 앓는 여자는 고쳐지고, 숨을 거둔 갓난아기는 소생한다」(33)고 한다.

예수는 처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자」고 자신 있게 가르쳤는데, 「그 무렵의 이 사람에게는 젊음과 혈색이 좋은 불과 희망이 있었다」(82). 예수를 「붙잡으라고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소리쳐도 누구 하나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92)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남자가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132)다. 그가 절름발이의 다리를 고쳐주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신들과 괴로워하는 일이니까…… 당신들의 괴로움을 나는……」이라고 말했을 때에도 「어쩌면 예수는 무슨 생각이 있어 절름발이 남자를 고치지 않은 게 아닌가」(41)라 생각하며 그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는 버리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는 어떤 마을에서도 기적을 행한 일이 없었다. 죽어 가는 노인의 배갓머

리에서 밤을 새우고, 자식을 잃은 어머니 옆에서 말없이 앉아있고, 석양에 눈이 보이지 않는 노파의 손을 잡고 있었으나, 그들을 고친 적은 없었다.(41-2). 사람들은 예수가 기적을 행하리라고 기대했으나, 그는 그리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 말에는 「기적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실망이 들어있었던 것이다」(42). 그리고 그 자신도 「나는 기적 같은 것을 행할 수 없다」(44)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예수는 「가정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꿈만 좇는, 책임능력이 없는 자」로서 사촌들과 친척들에게조차 「바보」(105) 취급을 받았다. 그는 「예언자 요한의 제자」(135)가 되었으나, 「거기에서도 떠나」(114) 스승의 흉내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156)기도 했는데, 결국 그가 무능으로 일관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자 사람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한때 백 명 가까웠던 제자들의 수도 현저히 줄」(73)기 시작하여 몇 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예수는 「모세처럼 사람들을 데리고 갈 힘도 없었」고, 「예언자 엘리야처럼 기적을 보일 능력도 없었」(85)었다. 그의 「생애는 결국 한사람의 인간도 붙잡을 수가 없었」(142)고, 그는 「이 나라에 무수히 있는 자칭 예언자의 한사람」(131)에 불과했다. 「기적은커녕 십자가」(144)를 지고 간다고 하는 보통사람도 할 수 있는 일조차 그는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대제사장 아나스에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실패할 것이라고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146)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에는 이 예수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내재되어있는 것이다. 실패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염두에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작품세계는 대부분 그 자신이 기적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대제사장 아나스에게 한 그의 이 말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는 결국 기적을 행할 생각도 있었으나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작자 엔도는 예수를 왜 이렇게 무력하기 그지없는 실패한 인간으로 형상화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를 사랑의 사람으로 그려내기 위해서이다. 예수, 그는 무능한 사람이었지만 사랑의 사람이었다. 지금까지의 고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슬픔에 잠기거나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었다. 「계곡에서 나환자들을 위로하며」(38) 함께 자기도 했다.

필자로서는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것은 예수가 정말 무력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다케다 도모쥬(武田友壽)는 「예수는 무력하기는 해도 약자는 아니다」⁷⁾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예수는 무력하지도 않고 약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가 기적은 행할 수 없었으나, 기적보다 더 소중한 사랑을 행했기 때문이요, 「한번 그 사

람을 안 사람은, 그 사람을 버리더라도 잊을 수가 없.(296)기 때문이다. 예수를 승자와 패자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되겠지만, 굳이 말하자면 그는 승자인 것이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승리를 거두면 이미 약자가 아니오 강자이기 때문이다.

무력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약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예수는 힘이 있는 강자이기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힘이 없는 약자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는 가족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은 병자에게 「옆에 있겠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93)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사 빌라도의 상념을 통해, 그 빌라도의 「어머니 옆에서」 「피로에 지친 보습으로 서있」(192)기도 한다.

정오, 세 개의 십자가가 형장에 세워지고, 더위는 여전히 심하고, 圓板 같은 태양은 하얗게 타오르면서 빛났다. 예수의 좌우에는 두 명의 죄수가 똑같이 양손과 발목에 못이 박혀 고개를 늘어뜨리고 있다. (중략) 죄수들은 언제까지나 계속 살아있었다. 왼쪽 죄수가 갑자기 얼굴을 들고 띄엄띄엄 예수에게 말했다. 나를 천국에서…… 잊지 말아 주세요. 예수도 땀과 피범벅이 된 얼굴에, 그래도 괴로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항상…… 네 옆에 내가…… 있겠다, 고.(323)

사람들의 동반자로서의 예수의 모습이다. 동반자 예수, 이것이 작자 엔도가 『사해의 주변』을 통하여 그리려 했던 예수의 모습이다. 환언하면 동반자 예수는 이 소설의 주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엔도는 「나」의 출신 대학에서 일했던 수도사로 쥐새끼(鼠)라는 별명을 가진 고바르스키를 통하여 동반자 예수를 가장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고바르스키는 「문자 그대로 쥐새끼 같은 얼굴을 한, 빈약한 폴란드 인으로 항상 울어 부은 것 같은 눈을 하고 있었」(23)는데, 「비굴」(67)하고도 「교활」(320)하여 사람들로부터 「경멸」(320)을 받았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사내였다. 「나」는 예수의 족적을 더듬는 여행을 하다 이 쥐새끼의 행적을 찾아다닌다. 그 결과 쥐새끼가 게르젠 포로수용소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수용소에서 그와 「같은 블럭의 바로 옆 침대」(312)에 있던 그래서 쥐새끼 「고바르스키를 알고 있었던 의사 이갈」(272)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그 편지의 한 구절이다.

잡역 일을 하러 가는 나를 신사복차림의 독일인이 불러 세워 고바르스키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내가 그의 팔을 잡자 그의 무릎이 경련을 일으킨 것처럼 떨리고,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밑으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심한 공포심에 그도 飢餓室로 가는 다른 죄수들처럼 오줌을 쏘던 것입니다. (322-3)

7) 武田友壽 『遠藤周作の文學』(聖文舍、1975・9, p.74)

일단 기아실에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구절로부터 두 줄 띄고 이어지는 편지의 다른 한 구절이다.

신사복을 입은 독일인이 그의 왼쪽에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나는 가만히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바르스키는 비틀거리면서 암전히 따라갔습니다. 그때 나는 한 순간—한 순간입니다만, 그의 오른쪽에 또 하나의 누군가가 그와 똑같이 비틀거리며 다리를 끌고 있는 것을 이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고바르스키와 똑같이 남루한 복장으로, 고바르스키와 똑같이 오줌을 땅에 흘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고바르스키의 오른쪽의 또 한사람이 예수라는 것은 재언을 요치 않을 것이다. 고바르스키의 동반자로서의 예수인 것이다. 이 장면은 『사해의 주변』의 핵심이며, 작자 엔도는 이 한 장면을 위하여 이 작품을 썼다 해도 좋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작자 엔도가 예수를 무능한 인간으로 형상화한 것은 그를 사랑의 사람으로 그려내기 위해서라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엔도가 빚어 만들고 싶었던 예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를 무능한 인간으로 해야만 했을까. 그는 능력이 있으면서 사랑까지 겸비한 사람을 조형할 수 없었지 않나 한다.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예수나 마리아를 상징하는 인물들을 보라. 한결같이 어딘가 좀 모자라는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여러 작품에 등장하여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가스톤, 『내가 · 버린 · 여자(わたしが · 棄てた · 女)』의 버림받은 여자 미쓰(ミツ), 두 사람은 예수와 마리아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어딘지 나사가 좀 풀린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엔도는 사랑의 사람을 그리는 것이 영리한 사람을 통해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처럼 어딘지 좀 모자라는 것 같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설에 등장시켰던 것이 아니었나 한다. 현대를 사는 능력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보아온 엔도이기에 그는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사랑의 사람을 그릴 수 없었을 것이다.

IV. 약자의 복권

『사해의 주변』의 주인공 「나」는 성서를 공부하는 대학시절의 친구 도타의 안내로 예수의 족적을 더듬는 이스라엘 여행을 하는데, 도중에 「나」의 관심은 앞에서 상술한 바 있는 쥐새끼라는 별명의 수도사 고바르스키에게로 옮겨 그의 행적을 찾아다니게 된다.

「나」의 관심이 예수에게서 쥐새끼에게로 바뀐 이유는, 「서랍 속에 내던져둔 나의 미완의 소설」, 「그 소설의 주인공에게 쥐새끼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내가 즐겨 쓰는 인간은 생각해보면 모두 쥐새끼 같은 인간들뿐이었다」(69)는 표현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등식은 <열세번째의 제자=쥐새끼=「내」가 작품에 즐겨 쓰는 인간>이다. 즉, 「나」는 쥐새끼를 몹시 싫어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소설에서 즐겨 써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쥐새끼 같은 인간들뿐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표면적으로는 쥐새끼를 혐오했지만, 의식의 심층에서는 그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족적을 더듬는 여행을 쥐새끼의 모습을 찾아다니는 여행으로 바꾼 것이다.

쥐새끼, 그는 어딘지 사람들에게 경멸감과 혐오감을 같이 자아내게 하는 극히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교활하여, 어딘지 『침묵』의 기치지로를 생각해 하는 인간이다. 또 하나의 기치지로, 환언하면 그의 분신이 『침묵』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사해의 주변』의 세계에 들어와서 독자들에게 혐오감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게 하는 게 쥐새끼이다. 그러나 여행이 진행됨에 따라, 「내」가 도타에게 한 말인데 「예수를 따랐던 열두 명의 훌륭한 제자보다도, 예수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 쪽이 신경이 쓰여서 말이야. 결국 쥐새끼도 나도 그 못된 제자와 닮은 것」(225)이라는, 「나」의 쥐새끼를 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여기에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등식은 <쥐새끼=「나」=열세번째의 제자>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나」의 도타에 대한 생각은 여행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 것보다는 의식하고 있지 못했던 것을 의식해 가는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여행 중에 자기의 의식 속에서 발견해낸 하나는 「쥐새끼의 울어 부은 것 같은 얼굴이 광야의 예수의 얼굴과 겹쳐졌다」(121)고 하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쥐새끼나 「나」나, 그리고 열세번째 제자 모두 예수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나치 수용소의 가스실이나 기아실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갖가지의 실용품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가죽은 지갑이나 전등갓 같은 것이 되고, 기름(脂肪)은 비누로 만들어졌다. 작품세계는 「쥐새끼가 만약 수용소에서 다른 시체들처럼 비누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면 그 빈약한 몸으로 만든 비누는 어떤 인간의 손에 건너간 것일까」라고, 쥐새끼도 비누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그 암시는 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이 표현의 조금 뒤에 「나의 쥐새끼가 이런 처참한 비누로 변해버렸다」(324)는 표현을 작자 엔도는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예수를 향하여, 「당신도 비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쥐새끼도 비누로 만든 것입니다」고 중얼거린다. 그리고 이어서 말한다.

당신은 무력하고, 무력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쫓겨나고, 갈릴리의 마을들에서도 쫓겨나고, 무력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욕설을 들으며 붙잡혀, 무력하면서도 자기의 몸에서 짜낸 고통의 기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씻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가

며, 항상 너의 옆에 내가 있겠다고 중언거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쥐새끼에게도, 누군가의 더러워진 손톱의 때를 씻고, 어린아이의 가랑이를 깨끗이 하고, 정사 뒤의 여자의 몸을 씻도록 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오줌을 흘리며 끌러가는 쥐새끼의 옆에서 자신도 오줌을 흘리며 따라가셔서, 최후에는 자신의 운명을 닮은 것을 나의 쥐새끼에게도 주셨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괴롭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당신의 부활의 의미를 아주 조금만이라도 생각해냈기 때문일까요. (324-5)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나의 쥐새끼」라고 하는 애정 어린 말투로 표현이 작품세계의 말미에 와서 바뀌었다는 것이다. 왜인가. 예수는 「자기의 몸에서 짜낸 고통의 기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씻으려고 하」였는데, 「쥐새끼에게도」 죽은 뒤 비누가 되어 「누군가의 더러워진 손톱의 때를 씻고, 어린아이의 가랑이를 깨끗이 하고, 정사 뒤의 여자의 몸을 씻도록 하」였다고 함으로써 쥐새끼를 예수와 동일선상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그런데, 예수의 「운명을 닮은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괴롭다는 말인가. 작자 엔도는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을 던지시 말해주고 있다. 엔도의 분신인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기는 했지만, 성서가 말하는 의미의 그런 부활은 아니었다.

엔도가 말하는 부활이란, 『예수의 생애(イエスの生涯)』 『그리스도의 탄생(キリストの誕生)』 『나에게 있어서의 신이란(私にとって神とは)』 등을 살펴 개념을 정리해보면, 사후의 예수(그의 이념이나 사랑 등)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그럴 때 예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부활했다는 것이다. 엔도는 에토 준(江藤淳)과의 대담⁸⁾에서 「동반자 예수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뒤, 이어서 「일본인으로서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선 동반자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가 어떤 사람의 동반자가 되었을 때 예수는 그 사람에게 부활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사해의 주변』에 있어서의 부활에 대해 밝히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자기의 운명을 닮은 것을 나의 쥐새끼에게도 주」었다는 것은, 자기가 쥐새끼에게도 부활을 주었다는 것으로, 자기가 쥐새끼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나」는 왜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괴롭다고 했는가. 그것은 쥐새끼와 같은 비열한 인간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괴롭다는 말이다.

「나」는 예수를 보고 당신도 비누가 되었다고 했지만,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죽은 것이 아니니 실제로 비누가 된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비누가 되었다는 것이라는 것은 재언을

8) 遠藤周作と江藤淳の對談 「『死海のほとり』をめぐる」(新潮社刊 『死海のほとり』付録、1973・6) <佐藤泰正編 『鑑賞日本現代文學』25 椎名麟三・遠藤周作』(角川書店、1973・2, p.446)>에서 재 인용.

요치 않을 것이다. 예수는 인간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비누, 자기의 同伴 파트너들의 마음을 씻어주는 비누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쥐새끼는 누군가의 더러워진 손톱의 때를 씻고, 어린아이의 가랑이를 깨끗이 하고, 정사 뒤의 여자의 몸을 씻는 비누가 되었던 것이다.

예수는 쥐새끼의 동반자가 되어 그에게 부활을 주었고, 비누가 되어 그에게 부활을 이루어주었다. 그리고 「나」의 부활까지도 이루어주었다. 쥐새끼에게 투영된 자기의 모습을 본 「나」는 쥐새끼를 분신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와 함께 부활한 것이다.

「나」나 쥐새끼나 모두 약자이다. 그리고 예수도 일관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능한 약자로 고개를 늘어뜨리고 다녔다. 그러나 실은, 예수는 무능하지도 않고 약자도 아니었다. 「한번 그 사람을 안 사람은 그 사람을 버리더라도 잊을 수가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미치게 한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 약자는 스스로 다른 사람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 강할 때만이 위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나도 도타도 아직 예수에게 구애되고 있다. 언제나 네 옆에 내가 있다. 작품세계가 막을 내리면서 「나」는 이런 상념에 젖는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귀찮게 따라다니는군, 예수는」(326)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제가 당신을 버렸을 때까지도, 당신은 저를 평생 버리려 하지 않으십니다」라고 예수를 향하여 고백하기에 이른다. 작자 엔도의 육성이 느껴지는 고백이다.

약자 「나」와 쥐새끼는 예수가 동반자로 되어줌으로써, 예수의 반열에 들게 됨으로 복권하게 된다. 약자의 복권인 것이다. 어쩌면 작자 엔도 자신도 자기의 분신들을 통해서 약자로서의 복권을 꾀한 것이 아닌지.

V. 엔도의 예수

몇 번이나 언급한대로 『사해의 주변』의 세계는 예수를 무능하고 무력한 예수로 조형해 놓았다. 성서의 예수와는 다른, 가미야 다다타카(神谷忠孝)의 말을 빌린다면 「성서에 대한 대담한 도전」⁹⁾인 것이다.

엔도 슈사쿠의 소설가로서의 생애는 기독교의 신과 예수像의 彫塑로 진력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침묵(沈黙)』 이래 이스라엘에 7번에 걸친 취재여행을 했다¹⁰⁾ 하니 그의 예수像 조형에 보인 열정은 남다르다 할 수밖에 없다. 사토 야스마사와의 전술한 바의 대담에서 「『침묵』을 쓴 뒤 성서학 책 같은 것을 읽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는 성서학

9) 神谷忠孝「死海のほとり」(『國文學解釋と鑑賞』<1986・10, p.101> 所收)

10) 佐藤泰正編 『鑑賞日本現代文學』25 椎名麟三・遠藤周作』(角川書店、1973・2, p.443)

을 공부하며 예수에 관한 문헌을 섭렵했다. 그 무렵 프로테스탄트 성서학자의 史的 예수 연구는 가톨릭의 그것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 성과를 면밀하게 검토¹¹⁾ 하는 등의 보통 아닌 열의 가운데 그는 자신의 예수像을 완성시켜갔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형된 예수는 소설 『사해의 주변』의 창작 노트로 알려진 평전 『예수의 생애』에 등장하여 독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예수는 모습을 별로 바꾸지 않은 채 다시 『사해의 주변』에 등장하여 그 무능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신약성서의 복음서 중의 예수像과는 현저하게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작자 엔도는 에토 준(江藤淳)과의 대담(新潮社刊『死海のほとり』月報)에서 「내가 성서 가운데에서 감동하는 것은 기적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을 나는 전혀 신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엔도가 이루어놓은 성서학 연구의 성과는 그의 작품들에 갖가지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며 『예수의 생애』, 그리고 『사해의 주변』 등이 그것이다. 『사해의 주변』에서는 작자 엔도의 분신 도타가 본체를 대신하여 그의 성서학 연구의 결과들을 대변한다.

도타는 「예수 시대 예루살렘의 기왓장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 지하의 훨씬 밑에 매몰되어 있다」며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한다.

예루살렘은 예수가 죽은 뒤 몇 번이나 파괴되고 재건되었다. 로마군이 무너뜨리고, 십자군이나 이슬람군이 깨뜨려 폐허가 된 거리 위에 새로운 거리를 만들었다. 차레차레로 무너진 거리 위에 거리를 만들면 언덕처럼 된다. 그것을 고고학에서는 tel이라고 하는 것이다. (18)

「지금의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서 그 위에 새로운 거리가 생기고, 그 거리가 무너지고 다시 길이나 집이 지어진 거리」(50)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와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 시대의 거리보다 50미터나 높은 지점」(50)이라는 것이다.

자기는 「오랫동안 성서 속에서 만들어진 것과, 진짜 예수가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한 것을 분류해 봤」는데, 「마가나 누가나 마태가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써서 어떤 식으로 썼는지, 「그 자료는 어디까지 사실에 부합되고 있는지」 모를 일이고, 「창작인지 전승인지」도 모를 일인데, 「그러한 전승과 창작 부분을 인내심을 발휘하여 제거하고 여과하여 순수한 것을 찾」으면 진짜는 「겨우 한줌의 예수의 족적 뿐」(60)이라고 도타는 말한다.

이와 같은 성서관 내지 예수像을 도타는 「나」에게 주입시키고 「나」는 이를 수용해가면서 두 사람의 예수像은 오버랩 되어 가는데, 이것이 『사해의 주변』의 세계에 있어서의 예수像이다. 그렇다고 두 사람의 예수像이 완전히 겹쳐지는 것은 아니다. 이럴 경우는 두 사람의 예수像 사이의 중간지점의 像이, 그리고 오버랩 된 예수像이 작자 엔도의 예수像이라 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

11) 上総英郎 『遠藤周作論』(春秋社、1987・11, p.249)

「나」의 예수像이 되었건, 도타의 예수像이 되었건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고, 이것이 엔도가 조형한 예수像으로, 작품세계에서는 큰 맥락으로 볼 때 「나」의 예수像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의 예수像이 성서의 예수像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은 가사이 아키후(笠井秋生)의 말을 빌리면, 『사해의 주변』의 세계는 「대학시절의 친구로, 지금은 성서학자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도타의 안내를 받아 『나』의 <교회의 예수>가 아닌 <나의 예수>를 찾아」 시작된 「여행」¹²⁾이니까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엔도가 굳이 성서의 예수와 다른 예수像을 조형하여 자기의 소설에 쓰지 않으면 안 될 필연성은 있었던 것일까. 엔도가 자기의 분신 도타를 시켜 한 말에 의하면,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원시기독교단이나 복음서의 기자가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61)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事實의 예수, 史實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事實(史實) 아닌 것을 제거하고 여과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순수한 것은 전술한대로 겨우 한줌의 예수의 족적 뿐이라는 것이 도타의 생각이다. 그래서 작자 엔도는 한줌의 예수의 족적을 근거로 하여 事實(史實)의 예수를 재현하려고 몸부림에 가까운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것이 <교회의 예수>가 아닌 <나의 예수>, 즉 「나」의 예수요, 도타의 예수며, 엔도의 예수인 것이 것이다.

사토 야스마사(佐藤泰正)는 이에 대하여, 엔도의 「최근의 원시 기독교 연구의 학문적 성과를 충분히 섭렵한 뒤의, 남달리 깊이 있는 고찰의 흔적이 엿보인다」고 전제한 다음, 「아이러니하게도 史的 예수의 原像에 접근함과 동시에 예수의 喪失 아닌, 離反 아닌, 그裏面인 독자적 예수像이 반대로 떠올라 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학문적 실증을 역이용하여 스스로의 문학적 예수像을 浮彫한 것이라고 첨언한다. 말하자면 「한 장의 네거(陰畫)로서의 예수」라는 것이다.¹³⁾

이처럼 사토 기요마사는 무척 점잖은 표현을 썼지만,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성서의 예수가 아닌 자신이 자의적으로 빚어 만든 엔도의 <나의 예수>가 『사해의 주변』의 예수인 것이다. 자의적이라는 필자의 표현에는 사토가 말한 「학문적 실증」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는 반론이 예상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엔도가 이 「학문적 실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얻었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해의 주변』의 창작 노트 역할도 한 『예수의 생애』를 보면 엔도가 예수像을 조형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신학자는 루돌프 불투만(1884-1976)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실존주의 신학자인 불투만의 연구의 핵심은 역사적 예수와 非神話化라고 할 수 있다.

12) 笠井秋生 『遠藤周作論』(双文社出版, 1987·11, p.182)

13) 佐藤泰正 『文學 その内なる神 日本近代文學一面』(櫻楓社, 1974·3, p.494)

그는, 역사적 예수에 관한 연구는 불가능하고 또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 복음서의 예수에 대한 자료 자체가 역사적 예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니 불가능하고, 역사적 예수가 신약성서의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비신화화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화의 제거가 아닌 해석을 해야 하는데 신화적 요소들의 의미를 실존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투만이기에 예수의 부활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는 인정할 수 없었다. 부활의 아침에 “무엇인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예수가 실제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의 주관적 신앙체험으로서의 신앙고백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학적 이론을 정립한 불투만은 현대신학연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것은 사실이나, 학문적·신학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에게조차 철저한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그의 견해대로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에 근거를 두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연구에 성경 복음서보다 더 방대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는 지금 현재로서는 발견된 바 없다는 것을 그도 오히려 간과 아니면 무시한 것이다.

『사해의 주변』의 세계의 예수는 작자 엔도가 극단적인 회의론적 입장에 선 일부 신학자의 영향을 받아 빚어 형상화한 것으로, 성서의 예수와도 <교회의 예수>와도 다른 「나」의 예수, 즉 엔도의 <나의 예수>인 것이다

맺는 말

엔도 슈사쿠는 일본문학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기독교 문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자기만의 역량을 작품들로 담아내었다.

『침묵』의 세계에는, 예수가 주인공 로드리고에게 자기(踏繪)를 「밟아라(踏むがいい)」라고 말하는 예수像을 조형하여 등장시키더니, 『사해의 주변』의 세계에는 무능하고 무력한 예수像을, 그러면서도 사랑 하나만으로 채워진 동반자로서의 예수像을 등장시켜 다른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아주지 않게 한다.

어느 것도 성서의 예수의 모습과는 다른 예수像이다. 그러므로 뛰어난 문학성에도 불구하고 엔도는 기독교계로부터 집중되어 날아온 화살들은 견디어야만 했다. 어느 종교에도 경전은 있게 마련이고 그들의 신앙은 그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전에 어긋나는 신앙의 행위가 발견되면 이단이라는 비난의 용단폭격을 사양치 않는 것이다. 기독교의 경전은 성서이고 엔도는 성서와는 다른 예수像을 빚어내어 자기의 작품세계에 등장시켰으니 교계로부터의 비난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앤도 문학의 연구자들은 거의 예찬 일변도로 始終한다. 물론 종교와 문학은 구별된다. 그러나 기독교 문학은 기독교에 관한 것인 이상 기독교의 관점에서 작품을 본다는 것을 외람되다 할 수는 없다. 크리스천이 아닌 연구자들이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局外者(out sider)로서 기독교 문학을 논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되듯이, 크리스천 된 자가 局內者(in sider)로서 기독교 문학을 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독교의 局內者(in sider)인 필자가 본 『사해의 주변』의 예수像은 성서의 예수像과는 그 모습이 판이하다(이점에서는 국외자의 관점도 다름이 없을 것이다). 史實의 예수像도 아니고 事實의 예수像도 아니다. 기독교의 예수像이 아니라 앤도라고 하는 한 뛰어난 작가가 자기의 마음에 맞는 한 인간을 빚어 만들어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歷史 속의 예수, 즉 실제로 존재했던 事實의 예수는 성서 속의 예수인 것이다. 성서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예수에 대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이 결론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參考文獻】

- 遠藤周作· 佐藤泰正(1991) 『人生の同伴者 遠藤周作』, 春秋社
- 笠井秋生(1987) 『遠藤周作論』, 双文社出版
- 遠藤周作(1983) 『私にとって神とは』, 光文社
- 武田友壽(1975) 『遠藤周作の文學』, 聖文舎
- 至文堂 (1986) 『國文學解釋と鑑賞』, 至文堂
- 佐藤泰正編(1973) 『『鑑賞日本現代文學』25 椎名麟三· 遠藤周作』, 角川書店
- 上總英郎(1987) 『遠藤周作論』, 春秋社
- 笠井秋生(1987) 『遠藤周作論』, 双文社出版
- 佐藤泰正(1974) 『文學 その内なる神 日本近代文學一面』, 櫻楓社

要 旨

遠藤周作は日本文學史において消し難い足跡を残した作家である。キリスト教文學という観点からみれば、他の誰にも眞似することのできない、彼のみ可能な力量を發揮した作品を残している。

『沈黙』の世界では、イエスが主人公のロドリゴに自分(踏繪)を「踏むがいい」と言うイエス像を造形し、登場させたかとおもうと、『死海のほとり』の世界では、無能で無力でありながら、愛一つだけで満たされた同伴者としてのイエス像を登場させ、他の登場人物たちの心をつかんで離してくれない。

どちらも聖書のイエスの姿とは異なるイエス像であるため、優れた文學性にもかかわらず、遠藤はキリスト教から集中的に飛んでくる矢を耐え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どの宗教にも經典はあって、彼らの信仰はそれに根をおろしている。だから自分たちの經典にあわない信仰の行爲が見つければ、異端という非難の絨毯爆撃を免れないのである。遠藤は聖書とは異なるイエス像を浮彫りにして自分の作品世界に登場させたため、教界からの非難は当然といってよいだろう。

にもかかわらず、遠藤文學の研究者たちはほとんど礼讃のみに終始している。もちろん宗教と文學との間には區別がある。しかしキリスト教文學はキリスト教に関するものである以上、キリスト教の観点から作品をみるという立場は間違っただけとは言えない。クリスチャンではない研究者たちが、アウトサイダーとしてキリスト教文學を論ずることを防ぐことはできず、また防いではならないように、クリスチャンがインサイダーとしてキリスト教文學を話すのも自然なことであろう。

キリスト教のインサイダーである筆者がみた『死海のほとり』のイエス像は聖書のイエス像とはその姿が全然違う(この点においてはアウトサイダーの観点も同じであろう)。史實のイエス像でもなく、事實のイエス像でもない。キリスト教のイエス像ではなく、遠藤という一人の優れた作家が自分の心にあう一人の人間を浮き彫りにしてイエスという名を与えたのにすぎないのである。歴史のなかのイエス、すなわち、実際に存在したイエスは聖書のなかのイエスなのである。聖書より信憑性のあるイエスに関する資料が見つからない以上、この結論に対する如何なる挑戦も許されないのである。

キーワード：同伴者、イエス、イエス像、エルサレム、宗教、捕虜收容所、復活

투 고 : 2003. 11. 26
2차 심사 : 2003. 12. 19
3차 심사 : 2004. 1. 8

住 所 : (305-764) 대전시 유성구 공동 충남대학교 220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42-821-5379, 5371

E-mail : j-seok@cnu.ac.kr